

TTA, WIPI 상호운용성 시험

정부가 국내 무선인터넷 표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피(WIFI,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)에 대한 상호운용성 시험행사가 처음으로 실시돼 위피 상용화가 한발짝 앞당겨지게 됐다. 한국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(TTA), SK텔레콤 등 15개 이동통신업

체와 함께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'제1차 위피 상호운용성 시험 행사'를 TTA 오픈랩(Open Lab)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. 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과 TTA는 이번 시험행사를 통해 위피-PCT(플랫폼 인증), 위피-SDK(개발저작도구) 및 콘텐츠에 대한 상호운용성 부문에 대해 집중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.

임윤규기자